

##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강동완 · 김현정 (동아대학교)

### 국문요약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물론 관련 제품들의 유통과 연계되며 북한 사회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유통 및 시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군대 내 불법 외래 영상물 시청 실태를 살펴보고 북한 당국의 검열과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시청과 유통에 대한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및 단속 실태를 북한의 공식 내부 문건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북한 군대에서 외래 영상물을 누가, 어떠한 경로 및 방법을 통해 시청하는지, 이러한 비법행위의 단속을 지시한 김정은의 '비준과업'과 북한 당국이 작성한 '대책 의견'을 토대로 단속과 검열 주체, 방법 등을 살펴본다.

주제어: 외부 정보, 북한 한류, 북한군, 북한 사회 변화, 남한 영상물 시청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내부 정세는 권력 이양을 위한 사상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은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결속력 및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상 학습을 강도 높게 진행하였다. 주로 김정일 시대부터 특히 강조되었던 “외부사조에 대한 단속과 제국주의 사상문화침투 봉쇄”를 강조하며 김정은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사상 통제에 주력하였다.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던 남한 영상물 및 외부사조 단속을 위해 별도의 단속소가 운영되고, 북한 내 유입 통로인 국경 밀수를 엄격히 차단하는 조치 등이 취해졌다.

그럼에도 북한 내에서 시장화와 연계된 조직과 뇌물로 인한 뇌주기 현상 등이 만연하면서 남한 영상물 시청과 유통에 대한 단속은 한계가 있었다. 간부부터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북한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복사한 사례도 북한 내부 문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었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물론 관련 제품들의 유통과 연계되며 북한 사회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유통 및 시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북한 내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으로 구분하여 남한 영상물 시청과 확산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도 하였으며, 인간 행동과 체제 변화라는 거시적 수준까지 확대하여 북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더해 북한 군대 내 불법 외래문화 단속 및 검열과 처벌, 나아가 북한 당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시청과 유통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및 단속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선군정치로 대변되는 북한에서 군인들의 기강 해이는 체제 변화 및 내구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체류 북한 주민 등을 면접조사하거나 북한의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을 분석한 것과 달리, 북한 군대에 배포된 공식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문건을 통해 북한군 내 자본주의 대중매체의 유입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매체를 접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체제의 이질성,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체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게 요구되며, 행동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주어지는 군대 내 외부 매체의 유입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물론 북한군 내부의 정보 통제와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엄격하고 비판적인 학습과 감시 상황을 고려하면 외부 대중매체의 유입만으로 이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부 매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군대 내부까지 유입·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변화이며 북한 체제 유지에 도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시대 4년차로 접어들면서 체제 내구력 및 변화 여부는 북한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체제 유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북한군의 기강 및 의식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닌 조직과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

한국을 비롯한 외래 문물의 북한 유입 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며, 본문에서 분석할 공식 문헌을 해제한다. 3장은 분석 자료를 토대로 북한군 내에서 불법 외래 영상물을 누가, 어떠한 경로 및 방법을 통해 시청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4장에서는 북한 군대 내 만연한 불법 외래 매체에 대해 경계한 김정은의 ‘비준과업’ 지시와 북한 당국이 지시내용을 따르기 위해 작성한 ‘대책 의견’을 토대로 단속 및 검열 주체, 단속과정 등을 분석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공식 문건을 통해서 본 북한군 내 외부 문화 침투 실태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본다.

## II.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 1. 선행연구

북한 사회 내 외부 문화 유입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창현(2000)의 ‘탈북자들의 남한 방송 수용과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이주철(2003)의 ‘북한 거주 당시 대북방송(RFA)을 경험한 탈북자들의 방송 수용 특성’에 관한 분석, 이민규·우형진(2004)의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 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성숙희(2005)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방송 수용’에 관한 저서, 곽정래·박승관(2006)의 ‘새터민의 대중매체 이용과 사회 적응’ 연구와 이창현·우민규(2008)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방송 수용 특성과 미디어 교육의 방향’ 등이 초기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교덕 외(2009)의 연구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문화와 관

련한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경로에 관한 연구<sup>1)</sup> 및 윤인진(2012)의 ‘북한 이주민의 문화 변용과 사회 적응’ 그리고 이미나·오원환(2013)의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등을 통해 북한이탈 주민의 남북한 거주 시 외부 문화 접촉 및 수용에 의한 사회 적응 관련 연구로 심화되었다.

북한 사회 내 한국 문화의 유입을 다룬 연구는 강동완·박정란(2010)의 ‘남한 영상 매체의 북한 유통 경로와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어 미디어 유통의 이해관계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또한 외부문화 접촉 후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다룬 박정란·강동완(2012)의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象)’<sup>3)</sup> 그리고 박정란·강동완(2013)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의 논문에서 북한 내부 주민의 의식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상의 선행연구물들은 공통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심층면접 연구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일반 북한 주민 대상의 외부 문화 접촉 혹은 나아가 의식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sup>4)</sup>

이외의 북한 내 외부문화 침투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전미영(2014)의 연구에서 미디어 유입에 관한 폭압정치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 당국도 정책 변화로 압박을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객관적 도구로 검증하는 시도를 했다. 북한 정부가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수호를 위해 공식적

1)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9), p.101.

2)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p.107.

3)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象),”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p.239.

4)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제9권 제2호(2013), p.208.

으로 외래문화의 유입을 불허하고 있으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 당국의 선택적 문화 도입을 통해 괴리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sup>5)</sup>

지금까지의 북한 내 한류 현상<sup>6)</sup> 및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주로 일반 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 내 다양한 계층을 세분화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북한 체제의 핵심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북한 군인을 특정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교덕(2011)의 연구는 북한 군인들의 외래문화 이용 실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군대 내 기강 해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일부 북한군인의 외래문화 접촉 실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sup>7)</sup> 이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 군대 내 기강 해이를 지시이행 태만, 군수물자 착복, 대민피해, 탈영, 기밀누설, 서구풍조 및 남한 문화 만연 등으로 유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계량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공식 문건 자료를 통해 북한군 내 남한 대중매체의 유입 상황 및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남한 영상매체를 접한 북한 주민들의 경험 여부 혹은 체제의 이질성,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수용 여부, 인지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가장 엄격하게 외부문화를

5)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2014), p.129.

6) 북한 내 한류 현상에 관한 연구 동향에 대한 세부 논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은 아래 논문을 참조함.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연구: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제2호(2014).

7)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차단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 군인의 외래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특히, 이전 연구가 진행하지 않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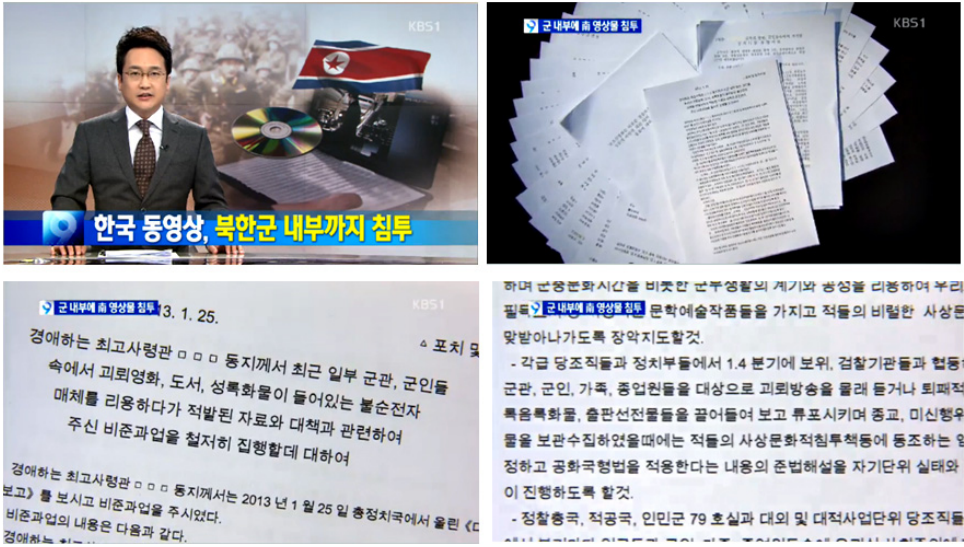
아울러 북한에서 작성된 공식 문건 혹은 언론보도의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측정한 선행 연구 사례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최근의 북한 군대 내 공식 문건에서 외부 매체 단속 내용, 적발 대상 적시 및 이에 대한 제재와 교시가 자세히 첨부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해당 문건은 외래문화의 차단을 지시한 김정은의 과업지시와 북한 당국이 일선 군대에 하달한 명령서의 내용을 담은 북한의 공식 내부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남한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한 매체 및 이동, 보관 수단, 매체 종류 등이 직접 확인된다.

## 2. 연구 방법 : 북한 공식 문건 해제

한국공영방송인 KBS는 지난 2014년 10월 20일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북한 군대 내 남한 동영상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북한 군대 내 한국 동영상 시청 실태와 북한 당국이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 기사의 출처가 바로 북한 군대에 배포된 내부 문건이었고, 그것을 입수하여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사진 1〉 북한 군대 내 한국 동영상 시청 실태를 보도한 KBS뉴스 화면



북한 연구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의 북한 언론매체나 북한원전을 살펴보는 문헌 분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조사 등으로 이루어진다.<sup>8)</sup> 최근 북·중 국경지대의 경비가 허술해지고 뇌물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 내부 문건은 KBS 뉴스에서 보도한 문건과 동일한 것으로, 연구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직접 입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북한 공식 문헌 자료는 2012년 작성된 것 3건과 2013년에 작성된 것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헌의 작성일 및 문건의 종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표 1〉과 같다.

8) 북한 연구의 방법론 및 북한 공간 문헌 분석의 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류길재, “김일성, 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49 참조.



〈표 1〉 북한 군대 내 분석 대상 문헌자료 해제

연번	문헌작성일	문건분류	문헌 제목
1	2013.1.25.	포치 및 조직 사업 문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최근 일부 군관, 군인들 속에서 괴뢰영화, 도서, 성록화물이 들어있는 불순전자 매체를 리용하다가 적발된 자료와 대책과 관련하여 주신 비준과업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
2	2013.1.31.	포치 및 조직 사업 문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색적인 사상문화화 생활풍조의 뿌리를 들추어내기 위한 조직 정치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비준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3	2013.4.3.	포치 및 조직 사업 문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원수님께서 79호 실사업 장악지도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비준과업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
4	2012.	당강습자료	문용수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의 당강습자료
5	2012.11.18	포치 및 조직 사업	경애하는 ○○○동지께서 주체101(2012)년 11월 18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6	2012.상반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	남조선영화를 비롯한 불순록음 록화물들을 짓밟개 버릴데 대한 당의 방침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공식문건은 ‘포치<sup>9)</sup> 및 조직사업 문건’, ‘당강습자료’,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이다. 북한의 ‘학습제강’과 ‘강연자료’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에게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

9) 포치(布置, 鋪置): 무엇을 벌려놓거나 넣어놓는다는 뜻으로 ‘어떤 사업에 앞서 일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단위들에 분공을 주고, 사업의 목적과 의의, 하여야 할 일의 내용, 그 수행방도 등을 알려주어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짜고드는 것’을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참조.

종의 ‘정치사상 학습지침서’라 할 수 있다. 본 문건들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마련한 지침서로서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교시 이행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표 1〉의 연번 1번 문건은 ‘포치 및 조직사업’에 관해 작성한 내용이다. 해당 문건들은 자본주의 외래문화 적발 사례를 적시하며, 이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김정은의 교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준과업’ 내 적발 사례는 적발 대상자, 적발 매체의 세부 종류, 상습성, 불법 행위 기간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진 ‘대책의견’은 적발 대상자에 대한 처분, 검열 체계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등장하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김정은의 교시 사항이 적시되었다.

〈표 1〉의 연번 2번 문건은 이전 보고 사항에 대한 김정은의 지시사항, 즉 비준과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연번 3, 5번 문건은 주로 적발 방법, 대책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적발을 담당한 기관, 단속 및 적발을 위한 방법, 단속의 주요 시기, 단속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표 1〉의 연번 4번 문건은 앞서 문건과 달리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 문용수의 당강습자료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당 개인의 긍정 사항 및 부정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는데, 부정 사항 중 문용수 보위부장이 관리해야 할 대상자(부하)가 남조선 TV 연속극을 시청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1〉의 6번 문건은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으로 2010년 12월 17일 김정일의 비준과업에 따른 상세한 적발 사항과 당의 방침집행정형 총화 및 새로운 개선 대책을 보도 형식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입수한 해당 문건 내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언급, 내용 중 이전 사항에 대해 기술된 날짜,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과도기 호칭으로 미루어 2012년 상반기 문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확산에 따른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는 김정일 정권 때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본 문건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뒤 권력 이양 과정에서 체제 결속과 정권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상 통제 차원에서 특별히 고양된 당교양사업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의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행위자 및 매체 접근 및 이용 방법과 도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 Ⅲ. 북한군인의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현황

#### 1. 누가 주로 시청하는가?

##### 1) 1번 문건(2013년 1월 25일 작성) 내 적발된 자

본 연구 대상인 해당 문건을 통해 먼저 북한 군대 내에서 누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다 단속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1번 문건 내에서는 제목에서와 같이 일부 군관, 군인들이 남한 영상물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남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단속 기간, 단속 기관, 단속 대상물 및 단속 대상 3인은 다음의 <표-2>와 같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발사례를 보면 인민무력부 지휘부 소속의 군인과 부관 등이며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부대의 군인 등이다.

〈표 2〉 1번 문건(2013년 1월 25일 작성)의 단속사항

단속기간	2012년 1월 12일 ~ 20일
단속기관	인민군 109연합 검열조의 ○○○ 소재 부대, 군분대 검열
단속대상물	괴뢰영화, 도서, 성록화물이 들어있는 불순전자매체 리용자
피적발자	- 인민무력부 직속 제3호 지휘부 A - ...의 부관 B -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제10통신련대 5통신결소속 C

2) 4번 문건(2012년 작성): 문용수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의 당 강습자료

해당 문건은 문용수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의 당강습자료이다. 우선 해당 자료는 북한군 조직이 부대 내 대상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구조를 엿볼 수 있다. 대상자인 문용수 보위부장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나누어 상세히 기술한 점이 흥미롭다. 문건은 해당자의 조직 내 경력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4.25 문화회관 관리중대 대원 사관장 7년 9개월, 보위대학(보위일군조) 3년 졸업하고 37대대 보위지도원 3년 4개월, 12군단 300군부대 보위부지도원 3년 9개월, 지구사령부 보위부 2부지도원 2년 8개월, 236 군부대 304련대 보위부장 2년 3개월, 군단사령부 보위부 2부지도원 2년 10개월, 군단사령부 보위부 2부장을 하다가 2007년 11월부터 현직에서 사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문건 내에는 대상자의 성격, 업무 처리 능력 정도, 혁명화 정도, 경제 및 가정생활의 도덕성, 취미, 건강, 음주 및 흡연 정도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대상자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술된 내용 중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관리 대상자(부하)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했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긍정 내용이 일반적 사항, 대체적인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부정적 내용은 주로 특정 사례를 일시별로 서

술하였다. 즉 이러한 사례는 적발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부하 군사들에 대한 관리에서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나 군대 내 돌발 사항에 대처가 미흡했던 점 등이 나열되었다. 이 중 부대 내 군관의 한국 미디어 시청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2011년 9월과 10월 316련대 2대대 한 중대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정에서 남조선 TV연속극을 시청하는 현상과 315련대 3대대에서 한 중대장이 사회성원들과 공모하여 마약거래하는 현상을 제때에 장악대처하지 못하였다.

이 문건을 보면 대대급의 중대장이 자신의 가정에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군부대 보위부장인 문용수가 이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3) 6번 문건(2012년 작성추정) 내 적발된 자 및 외부 미디어 접근이 의심되는 집단

앞서 본 문건이 남한 영상물 시청과 단속에 대한 개인별 사례를 제시했다면, 6번 문건을 통해서는 군부대 내의 집단 시청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영화를 비롯한 불순록음 록화물들을 짓몽개 버릴데 대한 당의 방침 집행정형 총화에 대하여

해당 자료는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이다. 동 문건은 2010년 12월 17일 김정일의 비준과업에 따른 상세한 적발 사항과 당의 방침 집행정형 총화, 개선대책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자료는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당시 보고(혹은 공지)의 기능을 띤 자료로 전반적으로 많

은 수의 적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실명이 기재된 피적발자로는 검열에 소홀하여 적발된 2인과 직접 외래문화를 접한 11인의 인적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표 3〉 6번 문건(2012년 작성추정)의 단속사항

단속대상 집단	군부대안의 모든 일군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 특정하여 언급된 연대로는 613연대 와 포병연대를 비롯한 일부 단위 정치일군들 / 315연대 및 316연대
피적발자	<p>① 당위원회 사업계획에 비상설조 검열과 관련한 사업내용들을 반영하지 않고 김정일의 6월18일 비준과업집행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6연대 포대대 경비분대장 리수향</li> <li>- 613연대 1대대 경비분대 대원 한설경</li> </ul> <p>② 외래문화를 접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6연대 2대대 화력부 중대장 박경옥을 비롯한 녀성군관</li> <li>- 315연대 1대대2중대 부중대장 전경섭</li> <li>- 316연대장 박영남</li> <li>- 613연대 작전상급참모 옥추봉을 비롯한 3명 군관</li> <li>- 1대대 정치지도원 로철웅</li> <li>- 사단 훈련부과장 길영남</li> <li>- 사단 중기계참모 최명환</li> <li>- 315연대 직속 기관포소대장 전영남</li> <li>- 316연대 3대대 7중대 부중대장 김성이</li> <li>- 315연대 참모장 허동성</li> <li>- 포병연대 대렬서기 장원철</li> </ul>

본 문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언급된 단속 대상이 군부대 안의 모든 일군(일꾼)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이 포함되며, 피적발 언급 사례만 하더라도 일반 군인에서 그들의 가족, 나아가 사단지휘부 소속자들, 심지어 단속 주체인 정치지도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적 적발 사례와 함께 몇몇이 함께 외래문화를 향유하다 적발되는 등 북한 군대 내 외래문화 침투 실태가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탈북 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sup>10)</sup> 결과를 보면 부대 내 서구 풍조나 남한 문화가 들어와 있는 정도가 “매우 심했다”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9명으로 전체의 19.5%였고, “거의 없었다”고 유입을 인정하지 않은 비율이 31.0%였다. 이 응답을 계급별로 보면 장교나 부사관보다 병사들이 훨씬 부대 내 유입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에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김정일 시대 북한 군대의 실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연구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장교와 병사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 빈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건은 지휘관급 장교들 중 다양한 계급과 직책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북한 군 내 장교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서구풍조 및 남한 문화 유입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매우 심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적은 편이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계급	병사	0.5%	4.7%	5.8%	1.6%	0.5%	13.1%
	부사관	2.6%	9.4%	12.0%	23.6%	24.1%	71.7%
	장교	1.0%	1.6%	1.6%	5.8%	5.2%	15.2%
전체		4.2%	15.7%	19.4%	30.9%	29.8%	100%

출처: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p.163.

<sup>10)</sup>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p.163.

## 2.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북한 군대 내에는 다양한 계급층과 가족들, 종업원들에게서 남한 영상물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속되는 외래문화는 정확히 무엇이며, 이들을 어떤 매개로 보관,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청 전파하는지 살펴보자.

문건을 통해 확인한 적발물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의 것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괴뢰’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괴뢰영화, 괴뢰색정전자도서, 괴뢰 TV연속극, 괴뢰 음악, 괴뢰화면음악(뮤직비디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문건에는 ‘외래 국가 적발물로 미국영화, 일본성록화물’ 그리고 ‘남조선 번역판 중국예술영화, 불법유통 중국영화 및 중국TV극’까지 포함되어 있다.

〈표 5〉 문건 내 기록된 적발 사항 (대상자, 외래미디어, 이용한 매체)

피적발자	소속 및 직위	적발물	이용매체
A	인민무력부 직속 제3호 지휘부	괴뢰영화와 < > <sup>11)</sup> 외 1편, 일본성록화물 6편, 괴뢰 TV연속극 < > 외 7편, 미국영화 < > 입력, 보관	외장하드
B	...의 부관	괴뢰색정전자도서 < > 1-3권, 괴뢰 미신자료 < >, < > 외 20개	노트형컴퓨터
C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제10통신련대 5통신결소속	괴뢰영화, < > 외 1편과 괴뢰 TV극 < > 외 2편, 괴뢰화면음악 < > 53편, 괴뢰음악 30곡, 괴뢰전자도서 < > 외 27개	티카드 손전화
리수향	316련대 포대대 경비분대장		
한설경	613련대 1대대 경비분대 대원	<등불>, <소중히 하자>, <세월아 가지말아> 노래 가사	수첩 메모
박경옥 및 녀성군관	316련대 2대대 화력부 중대장		



전경섭	315년대 1대대 2 중대 부중대장	비법복사한 영화	소형 TV
박영남	316년대장	-	소형 TV
옥추봉 및 3명 군관	613년대 작전상급 참모	통로 고정 없이 1년 이상 TV 사용	가정 내 TV
로철웅	1대대 정치지도원	무단 만수대 TV 시청	가정 내 TV
길영남	사단 훈련부과장	등록 및 고정 절차 무시 만수대 TV 시청	가정 내 TV 소형 TV
최명환	사단 동기계참모	등록 및 고정 절차 무시	가정 내 TV
전영남	315년대 직속 기 관포소대장	-	자체조립 라디오
김성이	316년대 3대대 7 중대 부중대장	-	자체조립 라디오
허동성	315년대 참모장	남조선 번역판 중국예술영화 <태 공천사>	-
장원철	포병년대 대렬서기	수십 장의 사회풍 가족사진	컴퓨터

또한 수첩에 불법 노래의 가사를 기재한 사실까지 적발되었다. 적발된 <등불>, <소중히 하자>, <세월아 가지마라>는 출처 불명의 노래로 간주되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자본주의사상과 생활풍조와의 투쟁을 수령결사옹위 전, 조국보위전, 치렬한 계급투쟁으로 보지 못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이 사업이 부대적인 사업,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출처불명의 노래와 외곡된 노래**를 부르고 미신행위에 밀려 드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에서 금지된 가족사진 촬영 및 보관과 사진 촬영 시 ‘우리 식’ 즉 정해진 자세가 아닌 자유로운 포즈를 취한 ‘사회풍’을 검열하고 있음을 다음의 문건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1) 해당 문건에는 모두 남한 영상물로 언급되는 제목을 < >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포병연대 대령서기 장원철은 컴퓨터에 수십장의 가족사진들을 입력시켜 놓은 것을 비롯하여 우리식이 아닌 행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현상과 사회 풍을 끌어들이 부대, 구분대의 진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건 내에서는 남한 및 외국의 영상물이 어떻게 유통되는가에 관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즉 어떤 도구를 적발하였는지를 통해서, 어떤 매체로 유통되었는지를 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된 매체는 CD, 외장하드, USB, DVD, 노트형컴퓨터, 컴퓨터, 티카드(T-Flash card), 손전화(휴대폰),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디오(라디오)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2013년 1월 25일 연번 1의 문건에는 피적발자 C가 티카드와 손전화를 이용해 외부 미디어를 시청하였다고 나오며, 유통 경로와 시청 수단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제10통신연대 5통신결속소 ...은 지난 1월 초 평양 제 2 병원 구급과 ...으로부터 괴뢰영화, < > 외 1편과 괴뢰 TV극 < > 외 2편, 괴뢰화면음악 < > 53편, 괴뢰음악 30곡, 괴뢰전자도서 < > 외 27개가 들어 있는 티카드를 받아가지고 91훈련소 후방부 군의부 ...의 집에서 그의 딸과 함께 손전화로 보다가 적발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적발자 C의 경우 불법 영상물의 구입 경로인 전달자, 영상물 관람 장소, 함께 본 가족 등이 전체적으로 드러나 단속 범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손전화를 이용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손전화를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영상물 시청이나 카메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4월 3일 작성된 3번 문건 상에는 구체적인 불법 외래문화 접근

방법으로 인터넷과 위성 텔레비전이 언급되었다. 북한 내에서 방영하지 않은 중국 영화, TV극의 불순 녹화물(목란비디오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대상 이외의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2012년 상반기 작성 추정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 연번 6의 내용에서는 포괄적인 단속 매체가 등장한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의 침습을 막기 위한 검열요강》에 준하여 비상설검열조성원들을 위한 실무강습을 조직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비상설조 검열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지난해만도 **중국산 소형텔레비존 3대와 자체로 조립한 반도체 라디오 1대, 중국산 소형녹음기 3대, USB를 맹목시키지 않은 DVD녹화기 10여대, 불순녹음녹화물들을 수록하였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CD와 DVD원판 300여개를 회수처리**하였으며 이사업에서 심중하게 제기된 5명의 대상들을 당검열위원회에서 30여명의 성원들을 해당 당세포들에서 비판각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단속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외래 불법 영상물 특히 한국 영상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여의치 않았음을 시사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남조선영화를 비롯한 불순녹음 녹화물들을 몰래보거나 류포시키는 현상들을 철저히 짓밟게 버릴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결함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한국을 비롯한 외래 영상물의 유통, 확산이 광범위하고 유통 도구가 외장하드, USB, CD, DVD, 티카드 등으로 다양하여 검열로써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둘째, 불법 영상물 시청 도구가 다양하고 교묘해졌다는 것이다. DVD 녹화기, 노트북컴퓨터, 컴퓨터, 손전화,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디오까지 다양하

므로, 이는 물리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영상물의 유통 확산이 어떤 식으로든 저장·보관되어야 한다면 적발 대상이 확정된다 할 수 있으나 컴퓨터, 손전화,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지오를 이용하면 저장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는 까닭에 사실상 전체를 검열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등록 및 통로(채널) 고정 절차를 무시한 가정 내 TV 혹은 소형 TV를 통해 만수대TV<sup>12)</sup> 혹은 외래 방영물을 시청한 사례는 사실상 군부대 내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문건의 내용을 보면 단속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북한 당국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북한 사회 일반은 물론 북한 군 내부에서도 남한 영상물 시청이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 영상물의 시청 및 단속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뇌물을 주고 봐주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한국산 제품과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상행위는 모두 불법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을 주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뇌물을 주지만, 비사회주의의 행위 양식이나 제품들을 사고팔다 적발되었을 때도 뇌물을 주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sup>13)</sup> 체제 결집과 충성도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단속은 결국 뇌물수수 및 봐주기 현

12) 만수대TV는 평양 시민과 평양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2차례에 걸쳐 러시아·쿠바·중국 등 구 동구권영화 위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콘텐츠를 방송하며, 평양시에 국한된 지역 방송이지만 인접한 남포시와 평안남도·황해남도·황해북도의 평지 일대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13)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 주민 의식조사,” 『북한학보』, 제39집 2호(2014), p.45.

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군인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에 따른 기강 해이와 사상 통제 약화는 물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부정부패와 단속의 한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3련대 정치부에서는 검열요강에 준하여 검열통제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전기사정에 빙자하면서 검열사업을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련대 작전상급참모 옥추봉을 비롯한 3명의 군관 **가정세대들에서 TV를 새로 구입하여 1년이 지나도록 통로도 고정하지 않고 리용하는 현상**과 1대대 정치지도원 로철용동무는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서 앞장서야할 정치일군인 자신부터가 **TV통로를 개봉하고 만수대TV를 보다가** 사단 검열에서 제기되는 심중한 결함들이 제기되었습니다.

… 중략 … 훈련부과장 길영남동무는 지난해 4월 조선인민군 훈련일군대회에서 받은 **선물 TV와 소형TV를 6달이 지나도록 등록 및 고정도 하지않고 만수대 텔레비존을 보다가** 수차 검열에서 제기되어 지적을 받았으며,

중기계참모 최명환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일군들속에서는 **새로 구입한 TV를 등록 및 통로그정도 하지 않고 리용**하다가 사단 비상설조 검열에서 제기되어 월마지막주 당생활총화에서 집중비판을 받는 한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부 프로그램 시청을 막기 위해 텔레비전은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며, 만약 단속이나 검열 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문건을 통해 확인한 등록 및 고정 절차를 무시한 가정 내 TV 혹은 소형 TV 및 손전화의 사용은 이용자가 어떠한 범위까지 시청을 한 것인지 추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검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 내에는 현재 전국망을 갖춘 조선중앙TV, 평양지역 방송인 만수대TV, 대남전용 방송으로 개성TV와 룡남산텔레비전방송(구, 조선교육문화TV)이 있으며, 만수대TV는 시청 지역 범위를 넘어선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외국 방영물을 기기조작을 통해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 IV. 북한 당국의 대응과 단속

### 1. 김정은의 지시 사항

분석 대상 자료 중 연번 2번 문건은 이전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 김정은이 지시한 비준과업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연번 6번 문건에서는 김정은이 불법 외래문화에 대해 경계하여 지시한 내용을 인용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 1) 2013년 1월 31일 문건 내 김정은의 비준과업

해당 문건은 2013년 1월 31일 총정치국에서 올린 대책보고<sup>14)</sup>에 대해 김정은이 지시한 비준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 적시된 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생활풍조의 뿌리를 들추어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비준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비준과업에서는 불법 외래문화를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배치되고 우

---

<sup>14)</sup> ‘2013년 1월 31일 총정치국에서 올린 대책보고’란 2013년 1월 25일 작성된 연번 1번 문건 내 ‘대책적 의견’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리 제도를 쪼먹는 불건전한 사상요소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적 의견’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2013년 1월 31일 문건 내 김정은이 제시한 ‘비준 과업’

번호	‘비준 과업’ 내용	
1	전군적 사상공세	인민군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심리모략 책동을 무집하게 짓몽개버리기 위한 전군적인 사상공세를 벌리도록 할 것
2	검열통제 방법 지시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공세적으로 벌리도록 할 것
3	피적발자에 대한 처리 지시	사회주의 선군문화에 배치되고 우리 제도를 쪼먹는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4	중장기적 단속을 위한 장악지도 지시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일관성 있게 내밀도록 장악지도할 것

(1) 전군적 사상공세

첫 번째 지시사항은 불법 외래문화 차단을 위한 전군적 사상공세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선 1·4분기에 사상투쟁을 집중할 것과 2월 중 일군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들 속에 빠짐없이 김정은의 교시를 전달침투하고 학습토론을 진행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를 인식시키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2월에 상급정치부일군들의 지도 밑에 자체검토를 빠짐없이 하게 한 다음,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대대 이상 당 및 청년동맹조직들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당세포들과 청년동맹초급단체들은 총회에서 사상투쟁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비준 과업의 내용 중에는 결속을 위한 특정 지역 및 단위, 대상 범위가 언급되었다. 황해남도 과일군, 룡연군 인민군대 안의 공장, 기업소, 농목장, 가족, 종업원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게 3월에 취급하는 정치학습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비준 과업 내에서 언급된 정치학습을 위한 강연 자료 및 각급 정치부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표 7〉 2013년 1월 31일 문건 내 김정은의 비준 과업 내용

강연자료	- 《혁명군인다운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날데 대하여》 - 《적들의 심리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총포성 없는 전쟁으로 여기고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강도높게 벌려나가자》
각급 정치부 노래	-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 《사회주의 지키세》 - 《이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또한 전군적 사상공세를 펼치기 위한 주체 기관으로 정찰총국,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 인민군 79호실과 대외 및 대적사업단위 당조직들, 정치부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분기마다 일군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들 속에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대상별, 단위별 특성과 사상동향에 맞게 진행하여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상자들이 말려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기본을 두고 창작가, 배우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전을 웃단위 일군들의 지도 밑에 분기 1차 1~2일 간 진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더불어 총참모부 ‘대렬보충국’에서는 신입 병사의 입대 시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를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맡는다고 명시한다.

위 문건에서 언급된 ‘각급 정치부 노래’인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 지키세〉,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등은 김정은 시대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연주되며 북한의 ‘목란비디오’를 통해 제작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보급되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결성된 악단이며,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의미 있는 행사나 기념일에 공연하였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에서 음악은 사상결속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번 문건에서 언급된 노래들 역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sup>15)</sup>

### (2) 검열통제 방법 지시

비준 과업의 내용 내에는 검열통제사업의 강화를 위한 통제방법이 상세히 지시되고 있다. 해당 연도 2월과 3월에는 “전군적으로 당책임일군 및 정치, 보위, 검찰일군들과 ‘109연합검열조성원’들이 총동원하여 불순 전자매체와 출판선전물, 이색적인 생활풍조에 대해 일대섬멸전을 벌리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열 및 수색에 대한 광범위성, 여러 기관의 연관 개입 및 조직적 운영 상황을 미루어 현재 북한 군대 내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래문화 영상물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유포, 시청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검열 및 통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2절에서 분석한다.

### (3) 피적발자에 대한 처리 지시

비준과업의 내용 내에는 피적발자를 처리하는 담당기관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김정은의 교시가 적시되어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 보위, 검찰기관에서 “외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발견 포착 시 이를 이적행위 및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대논쟁, 사상투쟁, 공개투쟁을 강하게 벌린 다음 강금, 강직, 출당, 철직, 제대, 추방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교시의 내용이다.

<sup>15)</sup> 김정은 시대 모란봉악단의 공연 배경 및 의미에 대해서는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서울: 선인, 2014) 참조.

더불어 각급 단위 정치, 보위, 검찰일군들이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 책동 사업을 장기적으로 벌이며, 당적·법적으로 엄하게 대책하는 한편, 피적발자를 배후두둔하거나 (적발증거)자료를 약화시키는 행위, 정실안 면관계(친분)에 따라 처리하는 행위, 돈과 물자를 받아 묵인하는 행위 또한 동조하는 위험 행위로 간주 강하게 검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본 문건에서 주목할 점은 단속 시 뇌물을 주거나 친분에 의한 봐주기 현상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북한 내 한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북한에서 한류가 확산되는 근원에는 정치적 내용이나 종교 관련 선전물이 아닌 단순 시청자의 경우 대부분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 그런데 북한 군대 내에서도 남한 영상물 시청 단속 시 ‘돈과 물자를 받아 묵인하는 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4) 중장기적 단속을 위한 장악지도 지시

중장기적으로 불법 외래문화, 즉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김정은의 대책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단, 여단 이상 정치부들에서 당위원회 전원회의와 군정간부회를 비롯 ‘아랫단위 책임일군’들이 올라올 때마다 사상문화와 이색 생활풍조를 없애기 위한 사업정형을 총화할 것,

둘째, 보위국을 비롯한 각급 단위의 정치, 보위기관들에서는 월 1차 ‘적들의 사상문화와 생활풍조’에 대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상호 교환하는 체계를 세울 것, 마지막으로 연대 이상단위 정치부 책임일군들이 ‘109련 합검열조’를 당적, 계급적 원칙이 강하고 수준과 능력이 있는 대상으로 꾸려 문제들을 책임있게 장악 지도할 것

이와 같은 것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 2) 연번 6번 문건 내 김정일의 ‘불법외래문화 경계’ 언급 사항

해당 문건 ‘남조선영화를 비롯한 불순록음 록화물들을 짓뭇개 버릴데 대한 당의 방침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내에는 불법 외래문화의 확산을 경계하는 김정일의 교시가 직접 인용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부셔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지지를 튼튼히 다질 수 없으며 나가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의 ‘비준과업’ 및 김정일의 교시는 즉각적으로 당과 군에 전달되어 북한 당국의 불법 외래문화 단속 주체 기관, 단속 및 검열, 수색 체계로서 구조화된다. 다음 2절에서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단속 형태에 대하여 문건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북한 당국의 단속 형태

### 1)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 섬멸을 위한 조직 체계

김정일의 ‘비준과업’ 지시에 대해 응답하는 내용의 ‘대책적 의견’ 내에는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 섬멸을 위한 교양사업, 단속 및 검열 그리고 처벌 기관과 이행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대책적 의견’은 ‘비준과업’ 지시 사항에 대해 군단 정치부가 정리하여 군대 내에 지시하는 사항이다.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헌 내용에는 불법 외래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 영역은 교양사업, 단속 및 검열, 출판물 감정, 신고 및 협조, 취조, 처벌, 비판 작성 등으로 세부화되어 있다.

〈표 8〉 북한 군대의 교양사업, 단속 및 검열 그리고 처벌 기관

업무 영역	주체기관
교양사업	- 정찰총국, 적공국, 인민군 79호실 - 대외 및 대적사업단위 당조직, 정치부들 군단예술선전대, 인민군대 안의 예술단체 총참모부 대렬보충국
단속 및 검열	- 인민군 109연합검열조와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국, 부 109연합검열조 - 사회 109연합지휘부 협동
출판물 감정	출판검열국 79호실, 국가안전보위부
신고 및 협조	사, 려단 정치부들은 각급 단위 지휘관, 참모부, 정치부, 보위, 검찰기관과 협조
취조	인민군 보위국
처벌	인민군 검찰국
비판 작성	당검열위원회 (심중) 당세포 (경미)

북한 당국은 이들 간의 협조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즉 단속 및 검열의 주체기관인 ‘인민군 109연합검열조’에만 책임을 강조하지 말고 스스로 신고하고 검열하여 공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련대 단위 정치부 차원에서 매일 비상설조검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한편, ‘인민군 109연합검열조’와 ‘사회 109연합지휘부’가 협동하여 검열단속통제를 강도 높게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 적발을 위한 단속, 검열 형태

우선은 단속 및 검열 기관과 연대 단위 정치부 등이 군관 및 군인 등 개인이 소지한 불순 전자 매체를 단속하는 데에 집중한다. 즉 유통 도구가 되는 외장하드, USB, CD, DVD, 티카드 등의 소지를 단속하며, 둘째, 불법 영상물 시청의 이용 도구가 될 수 있는 DVD 녹화기, 노트북컴퓨터, 컴퓨터, 손전화,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디오 등 매체성 기구와 함께 위성 텔레비전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접촉 혹은 접속, 자료조사 및 열람 등을 광범위하게 검열한다.

특히 문건 내 해당 영역에서는 손전화의 확대를 통해 외래문화가 급속히 전파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부들에서 1.4분기안으로 보위, 검찰기관들과 협동하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손전화기를 빠짐없이 회수처리하며 몰래 가지고 불순자료들을 보는 현상이 나타났을때에는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류포시키는 주범으로 락인하고 당적, 법적으로 엄하게 처리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도록 할 것

북한 사회 변화의 주요한 양상 중 하나는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미디어 매체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알판'이라 불리는 CD나 DVD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매체가 급속히 진화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녹화기라 불리는 재생 장치가 아닌 중국산 DVD플레이어는 북한에서의 외래문화 이용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sup>16)</sup>

16)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p.173.

통제되고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부 정보가 다른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유통된다는 점은 북한 체제의 결속력과 사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시청 용도가 아닌 유통 도구로 외장하드, USB, CD, DVD, 티카드 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영상물 시청의 이용 도구가 될 수 있는 매체성 기구와 함께, 위성 텔레비전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시청도 기존 방식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검열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검열 주관기관인 109연합검열조에만 책임을 방임하지 말고, 당위원회적인 사업, 부대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중지도, 검열, 판정, 지도사업을 조직하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부, 보위부들에서 모든 군관, 군인들과 동, 인민반, 핵심군중을 통한 장악 및 신고 체계를 철저히 세워 자기 단위와 주둔 지역에서 이색적인 록음록화물을 감찰하고, 유포시키는 대상, 출처 없는 노래를 부르거나, ‘우리 노래’를 왜곡하여 부르는 대상, ‘우리식’이 아닌 춤, 종교, 미신 행위들을 색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해당 의견 내에는 수색 및 검열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지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불심검열, 야간 및 교차검열, 수색전 등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군중, 군단(그와 같은 단위) 정치부 책임일군들이 2월중에 109연합검열조들의 지난해 활동정형을 경험과 교훈적으로 분석하고 불의검열, 야간검열, 교차검열과 수색전, 탐색전, 추격전을 근기있게 벌려 뿌리를 끝까지 들추어 내도록 장악지도할 것

이상과 같이 북한 당국은 사, 려단 정치부의 교양사업의 시행과 함께 집중적인 사상전, 검열통제사업투쟁을 각급 단위 지휘관, 참모부, 정치부, 보위, 검찰기관 간 배합과 협동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준

과업 내 해당내용을 련대(3급 공장, 기업소) 이상 단위 당위원회와 해당 부서과 집행대장에 등록하고 집행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 3) 검열기관 및 단속조: '109그루뻘'에서 '7.27상무조'까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의 지시사항 중 “정치부 책임일군들이 ‘109련합검열조’를 당적, 계급적 원칙이 강하고...”라는 내용이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지시이행을 위해 ‘109 그루뻘’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불법 외래문화 침투 및 자본주의 생활 풍조를 막기 위한 기준 방침은 첫째, 북·중 간 국경을 물리적으로 통제함과 둘째, 자본주의 풍속 단속을 위한 시청각 기기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를 제재하는 대표적 통제 기구로는 ‘109상무(109그루뻘)’로 알려져 왔다. 이 기구는 “외색 자본주의 사상을 척결하라”고 하는 김정일의 교시날짜(10월 9일)를 따서 이름 지어진 특별단속그룹이며 외국 영화, 노래, 출판물, 방송 등을 접하거나 유통시키는 주민들을 색출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이 기구는 주로 DVD, USB, 라디오, 출판물, 중국산 휴대전화 등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압수한 매체들을 다시 조직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김정은 집권 이후 ‘114상무’<sup>17)</sup>가 조직되었고, 검열 조직의 부패나 불법 행위 등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조직 내 견제 및 감시가 일상화되도록 조치하였다.<sup>18)</sup>

최근에는 군인들로 구성된 검열 조직인 7.27상무까지 등장하여 강력

<sup>17)</sup> 114상무 또한 불법 출판물과 녹화물을 단속하라는 김정은의 교시(1월 14일)을 딴 명칭이다.

<sup>18)</sup>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13년 북한의 한류열풍, 어디까지 왔나?; <<http://blog.unikorea.go.kr/3937>> (검색일: 2015년 4월 19일).

하게 남한 매체에 대한 단속을 펴고 있다고 전해진다. '7.27 상무조'는 기존의 '109그루뻘'을 통한 단속이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109그루뻘'까지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한 영상물 시청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사업, 단속 및 검열, 출판물 감정, 신고 및 협조, 취조, 처벌, 비판 작성 등으로 업무가 세부화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 V. 결론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군대에 공식적으로 하달한 내부 문건 분석을 통해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과 단속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밀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브로커에 의한 조직적 탈북이 가능해지면서 북한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부 문건은 김정은 시대 북한 군대의 외래문화 접촉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접촉 실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북한 주민들이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어떠한 의식변화를 겪는지, 한국 영상물이라는 매개체가 북한 내부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연결망을 형성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 여부와 속도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늘 한계로 지적되었던 것은 북한 내 다양한 계층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북한 체제 변화 여부를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선군정치로 대변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체제 유지의 핵심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충성도와 결속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에서 군대의 역할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고 체제 수호를 위한 최전선의 혁명 계급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과는 당연히 구별되는 강도 높은 사상 통제와 정치학습을 통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따라서 북한 군인의 사상교양과 충성도는 북한 체제를 전망하는 주요한 지표라 하겠다.

체제 안정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군정치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면 군의 사상 교육이 완벽해야 한다. 북한은 사상진지가 무너지면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도 파멸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보위의 보루인 군대의 사상을 매우 중요시한다.<sup>19)</sup> 북한 군인의 기강은 북한 체제 유지 및 변화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남한의 외래문화를 접하고 의식과 행위양식이 변화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썩고 병든 자본주의”로서 가득한 적대감으로 보는 남한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남한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래문화의 접촉은 군인의 기강 해이는 물론 체제에 대한 충성도와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남한 영상물을 단순한 흥미와 재미 위주로 시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 시청이 곧 체제 변화라는 거시적 행위 양식의 변화까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를 엄격히 봉쇄하기 위한 사상 통제와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19)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p.89.

에 대한 처벌이 강도 높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군대 내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과 확산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은 북한 당국의 군대에 대한 통제와 장악력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철저한 명령체계에 기반을 두어 유기적인 체계로 작동한다면 그 내구력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상통제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단속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을 단순히 흥미와 재미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항을 통해 북한 체제 내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군대 내에 다양한 계급과 보직자들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사상문화침투 책동을 분쇄”하고 “군 사상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대 내 다양한 계급들이 단속되었으며 심지어 군대 내에서 이들을 감시할 정치보위원들도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군대 내 계급을 보면 ‘경비분대장, 중대장, 정치지도원, 훈련부 과장, 사단 중기계참모, 기관포소대장, 참모장, 대렬서기’ 등이다. 단속자들의 대부분은 지휘관급 장교들로서 사병의 단순 시청 행위와는 분명 구별된다. 또한 군인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단속된 사례도 있었으며 군인 가족과 종업원 등이 함께 시청하다 적발된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군대가 아닌 민간인 경우 엘리트나 상층부에서 남한 영상물을 먼저 시청, 소비하고 이러한 경향이 일반 주민에게까지 내려오는 위계질서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과거와 같이 단순한 시청자, 소비자의 영역을 넘어 상층부와 결탁하여 남한 영상물을 밀수하거나 북한 내에서 장마당을 통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자로 확대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상층부가 먼저 시청하고 나중에 하층 주민까지 확산되었던 현상과 달리, 군대의 경우 초기에는 일반 병사나 하층 계

급에서 먼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였다. 하지만 본 문건에서 확인한 바로는 군대 내 간부급 등의 상층부에서 시청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민간과 비교된다. 물론 남한 영상물이 시청되고 있는 위계적 특성을 근거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고나 전망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으로서 군대 내 간부들의 사상 이완은 체제 내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한 군대 내에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매체의 진화는 남한 영상물 시청 속도와 확산 범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한 시청용을 넘어서 북한 장마당을 통해 거래가 됨으로써 물건을 통한 인적, 물적 연락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지역별 감시체계가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북한 체제 내구력은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품 유통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이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인들이 국경을 비롯하여 뇌물을 받고 지역 간 이동을 무마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문건에서는 손전화기, 노트형 컴퓨터, 외장하드, USB, DVD, 위성TV, CD, 인터넷 등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가 직접 언급되고 있다. 단속의 대상 매체도 영화, 전자도서, 미신자료, 연속극, 화면음악(뮤직비디오), 음악, 성녹화물 등 다양하다. 이러한 상품들은 군인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된 장마당 상인들에 의해 북한 사회에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 사상문화 봉쇄”를 제시하며 단속반을 가동하지만 문건을 보면 스스로 단속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건 내에서는 단속 기관으로 ‘인민군 109 연합검열조’, ‘사회 109연합

지휘부', '총참모부', '정찰총국', '적공국', '인민군 79호실', '출판검열국 79호실' 등 당, 정, 군 모든 기관이 망라되어 남한 영상물 시청과 확산을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체가 다양화되고 뇌물을 통한 봐주기 현상이 생겨나 단속에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부터 수직적 통제 기제가 원활히 작동했던 기존의 북한 체제에 일정 부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본 문건에서 김정은의 직접 교시와 과업 등을 관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관련 조직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 영상물 시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북한체제의 근간인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 주민의 직접 면접이나 증언이 아닌 북한 당국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통해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의 시청 및 단속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북한군의 장교급 이상 현직 군인들을 직접 면접할 수 없다는 제약과 북한이탈주민 중 김정은 시대 군인으로 복무했던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건 분석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번 문건은 북한 당국의 시각에서 남한 영상물의 시청과 단속 실태를 상세히 언급했으므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오늘'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군정치로서 군부의 위상과 권력이 막강한 북한 체제에서 북한군의 남한 영상물 시청과 외래문화 접촉에 따른 기강 해이는 '오늘의 북한'이 향후 어디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단속의 한계 상황이 어떠한 속도와 범위로 이어질지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 단행본

-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강동완·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교덕·정규섭·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

### 국문 논문

-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2014). pp.167~202.
-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pp.107~140.
-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 주민 의식조사.” 『북한학보』. 제39집 2호(2014). p.45.
- 곽정래·박승관. “새터민의 대중매체 이용과 사회적응.” 『한국언론학보』. 제25권 3호(2006). p.415~504.
-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2009). pp.81~101.
- 류길재. “김일성, 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박승인. “한류의 현재와 미래: 외국 유학생을 위한 교양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3년 춘계전국학술대회 논문집』. 2013. pp.395~404.
-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pp.239~270.
-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제9권 제2호(2013). pp.199~235.

- 오양열.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플랫폼』, 제26호(2011), pp.16~23.
-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변화.”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2011), p.435~501.
- 윤인진.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제41호(2012), p.1~54.
- 임석준 · 강동완 · 김현정. “북한의 한류연구: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2014), pp.83~111.
- 이미나 · 오원환.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32호(2013), p.75~101.
- 이주철. “북한 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0호(2002), pp.257~282.
- 이창현.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Q방법론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선호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4권 2호(2000), p.151~186.
-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2014), p.129~155.
- Zhou Yu bo. “중국 영상 문화에 끼친 한류의 영향: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아시아의 재발견: 동아시아 국가간 TV 프로그램 교류의 의미』, 2005, pp.95~113.

#### 인터넷 자료

-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13년 북한의 한류열풍, 어디까지 왔나?”; <<http://blog.unikorea.go.kr/3937>> (검색일: 2015년 4월 19일).

## A Study on Influence of South Korean Visual Media in The North Korean Army and North Korea's Management Capability

Kang, Dong-Wan ·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 Abstract

In the closed society, North Korea, the influx of the external information into the internal territories has critically played a role as a primary factor to change the attitude of its citizens, and consequently its society. As the Korean wave - the Hallyu - penetrates through North Korea, the world's most reclusive country, academic interest in this phenomenon has follow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cedure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or crackdown, censorship on, and punishment for illegal foreign cultures. While previous research has studied on watching and distributing the South Korean visual media for civilians by surveying defectors from the North, this research is very distinctive as focusing on its influence upon the North Korean Army based on official internal document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nder the situation that Sun-Goon (military-first) Politics is a critical way to accomplish the national goal in North Korea, the soldiers' indiscipline has developed the regime change, and weakened its durability.

Key words: external information, Korean Wave (Hallyu) in North Korea, North Korean army,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

**강동완(Kang, Dong-Wan)**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2014),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와 전망: 모란봉악단 공연 분석을 중심으로”(2014),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2013) 등이 있다.

---

**김현정(Kim, Hyun-Jung)**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교육혁신원 조교수이다. 주요 논저로는 “체험인지형 지역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2015), “통일교육의 로컬리티 관점 개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2015), “북한의 한류 연구: 동향과 과제”(2014) 등이 있다.